연중 제20주일 강론(2019년 8월 18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어떤 한 신자 분이 약 7개월 동안 700명 가량을 천주교로 입교시킨 분이 계셔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공덕동 성당 신자인 채충석 요셉씨는 이 공로로 서울 대교구장으로부터 선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선교왕이 된 이후에도 그 분은 꾸준히 선교하여 10여 년 동안 무려 3000 여명 이상을 천주교에 입교 시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 하죠?

보통 ‘선교’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사실은 신앙 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특별한 은총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신자 모두가 나서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당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 이유를 한가지 지적하면, 선교를 잘 안한다는 겁니다. 아니 절대 안합니다. 선교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는 모양입니다. 선교 절대 안합니다. 그렇죠? 선교는 신부가 혼자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목회장만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역장들만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신자들 모두의 사명입니다. 혹시 내가 신앙 생활을 해 오면서 과연 몇 명이나 성당으로 인도했는지 세 보시겠습니까? 한 10년 신앙 생활하시면서 한 10명 쯤은 성당으로 인도하셨나요? 아니면 한 5명쯤 하셨나요? 평생 신앙 생활하시면서 단 한 명도 성당으로 인도하신 분이 없으신가요?

인천 교구에서 선교 대상을 받으신 천순영 아녜스 자매님은 이웃에 사는 사람이 “아주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싱글벙글 하면서 사세요? 참 부러워요!”라고 말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느님을 만나고, 성당을 다니면 항상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요!”하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성당에 함께 가보자고 초대 한답니다.

수원 교구의 선교왕 조정선 아브라함 씨는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허드렛일을 돕고 마을에 길흉사가 생길때 마다 어디든지 늘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분을 따라서 성당에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생활을 하면 특별히 아무말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한 신앙 생활과 봉사하는 삶, 일상 생활에서의 모범을 통해 “저 사람은 참 밝고 좋아.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 역시 성당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하는 좋은 평판을 듣는 다면 그것이 선교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과 칭찬을 듣는 신앙 생활을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어디 나가서 성당 신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주변에는 선교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냉담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함께 성당 다니고, 함께 신앙 생활 하자고 초대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내 코가 석자라 남 신경 쓸 겨를이 없죠? 내 신앙이 깊지 못하고, 내 신앙 생활하기도 바쁘고, 내 신앙도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선교도 내 마음이 신앙으로 불타오르고, 내 신앙이 튼튼하고, 내 신앙 생활이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이고, 믿음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아직 타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아직 타오르지 않았지만, 지금 까지도 제대로 붙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평화’이고, ‘화해’와 ‘일치’인데,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랑의 불, 성령의 불, 신앙의 불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과 악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마음 속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과 마음 속에 사랑이 전혀 없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세상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한 지붕 아래, 한 가족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한 이웃 안에 이들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선과 악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들이 서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열입니다. 단순히 평화가 깨어지는 분열과 긴장이 아니라, 선과 악이 드러남으로써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갈라지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나 서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주고 받을 상처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서운함이나 실망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또 믿었던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가장 가까워야할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불신과 분열, 악이 끼어드는 세상....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까워서 악이 감히 끼어들 것 같지 않은 인간 관계에도, 한 가족, 한 공동체 안에도 악이 끼어드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악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불신과 편견, 고집과 교만이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소중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잘 못느끼고 살아가지만, 우리 가족은, 내 부인은,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내 동료는, 내 친구는, 이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 ‘웬수’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악하고 나쁜 말만 주고 받으면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미워하면서 마음에 상처만 주고 받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하느님의 선물이 되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 사랑의 불, 신앙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타오르게 합시다. 이 불은 우리 삶을 참된 행복과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